

행복의 사회적 기능: 행복한 사람이 인기가 있나?*

구재선[†] 이아롱 서은국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과 또래 관계 형성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서 총 241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우 관계가 형성되기 전인 1학기 초에 행복 수준(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자기존중감, 낙관주의)을 측정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 인기도와 사회적 행동을 자기보고 및 또래 평가 방식으로 측정했다. 학기 초 행복 수준과 그 이후 형성된 또래 관계의 관련성을 검토했을 때, 초기 행복 수준은 4개월 이후의 긍정적인 자기 지각 및 또래로부터의 사랑과 인정과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기 초에 행복했던 남학생은 또래로부터 좋아하는 친구로 지명되었고, 초기 행복 수준이 높았던 여학생은 창의력이 있고 남을 돕는 친구로 지명되었다. 또한 행복한 남녀 청소년은 스스로를 사회성과 리더십이 높고 또래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행복,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인기도, 또래 관계, 긍정적 정서의 확장-축적 이론

* 연구에 도움을 주신 인천 인주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담임선생님, 학년주임 선생님, 그리고 원유자 교장선생님과 허희숙 교육문화경영연구소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구재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E-mail : susanna9@hanmail.net

심리학이 행복이나 긍정적 정서와 같은 인간의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된 이래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행복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주력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왔다(자세한 내용은 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한 접근들은 행복을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한 목표 상태로 가정하고, 행복의 원인 또는 조건을 찾으려는 시도들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이 횡단적 상관 연구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암묵적, 혹은 명시적인 종속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왜 행복해야 하는가, 행복한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좋은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복이 유용한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일찍이 Veenhoven(1988; 1989)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그는 행복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이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삶의 즐거움은 게으름을 유발하고, 더 나은 삶을 찾도록 자극하지 못하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개인주의를 확산시켜서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킨다는 실용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행복이 해로운 효과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은 적극적인 개입을 유발하고,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접촉을 촉진하며,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는 사회구성원들이 불행할 때 보다 행복할 때 사회가 더 번영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Lyubomirsky와 King, Diener(2005)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이들은 성공과 행복의 인과적 관련성이 양방향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들이 결혼, 우정, 수입, 직업, 건강과 같은 삶의 영역에서의 성공이 행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가정해왔다고 지적하고, 반대 방향으로의 인과적 가능성을 검토했다. 행복한 사람이 사회에서 가치롭게 여겨지는 성공적 결과를 획득한다는 개념적 모델을 설정하고 총 225개의 횡단, 종단, 실험 연구들의 효과크기를 검증했을 때, 장기적인 행복과 단기적인 긍정적 정서는 모두 직업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적응적 특성을 유발함으로써 행복이 성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개념적 모델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행복이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니라 다른 바람직한 결과들을 산출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리뷰에 사용된 연구들은 행복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 시도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과 사회적 기능을 시간적 차이를 두고 측정함으로써 행복이 이후 삶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검토했다.

긍정적 정서의 확장-축적 이론

행복이 어떻게 위와 같은 긍정적 결과를 유발하는가? 이에 대해 Fredrickson(1998, 2001, 2005)은 부정적 정서의 구체적 활동 경향(specific action tendency)과 구분되는 긍정적 정서의 확장-축적 이론(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을 제안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공포, 분노, 혐오와 같은 부정적 정서들은 도망, 공격, 추방과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순간적인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좁히는 기능을 하며, 그 결과 위협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의 경우, 전형적인 발생 맥락이 위협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행복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즐거움, 흥미, 만족, 자부심,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비록 현상적으로는 다르게 경험되지만 모두 일시적인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결과 긍정적 정서는 독특한 사고 패턴(Isen, Johnson, Mertz, & Robinson, 1985), 융통성(Isen & Daubman, 1984), 창의력(Isen, Daubman, & Nowicki, 1987)을 향상시키고, 상호작용과 환경에 대한 탐색을 촉진하게 된다.

Fredrickson(1998, 2001, 2005)은 이렇게 확장된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가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지적, 심리적 자원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즐거움(joy)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놀이(play)는 신체 자원, 지적 자원(예를 들면, 창의력과 뇌 발달), 그리고 사회적 놀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긍정적 정서의 자원 형성 기능은 일련의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 심리적 자원의 경우, 9.11 테러와 같은 위기 직후에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사람 또는 명상을 통해 긍정적 정서가 증가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고 여러 심리적 자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Fredrickson, Cohn, Coffey, Pek & Finkel, 2008; Fredrickson, Tugade, Waugh, & Larkin, 2003). 사

회적 자원의 측면에서도 대학 1학년 첫 일주일 동안 경험한 긍정적 정서는 새로운 룸메이트와의 일체감과 친밀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Waugh & Fredrickson, 2006).

따라서 비록 긍정적 정서 자체는 일시적으로 경험된 후 사라질지라도 그러한 정서 상태 동안 증가된 개인적 자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다음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자산이 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정서적 안녕의 방향으로 나선형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Fredrickson & Joiner, 2002).

행복의 사회적 자산 형성

본 연구는 긍정적 정서의 확장-축적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의 행복이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를 검토했다. 행복과 사회적 관계의 밀접한 관련성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행복은 실제 친구의 수 및 우정 관계와 높은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구재선, 김의철, 2006b; 이주일, 정지원, 이정미, 2006; Baldassare, Rosenfield, & Rook, 1984; Requena, 1995). 또한 사람들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고 관계의 단절 또는 부재 상황에서 불행했으며(구재선, 김의철, 2006a; Csikszentmihalyi & Wong, 1991), 가장 행복한 상위 10%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사회적이었고, 강한 연인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Diener & Seligman, 2002).

사회적 접촉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반대로 Fredrickson(1998; 2001; 2005)의 주장과

같이 행복이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가? 다음과 같은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은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더 즐기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거나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인물을 더 좋아하고, 신뢰하며, 그러한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더 즐겁고 행복할 것으로 기대한다(Bell, 1978; Harker & Keltner, 2001). Berry와 Hansen(1996)이 낯선 사람과 6분간 상호작용을 하게 한 후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게 했을 때에도 긍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의 파트너가 긍정적 정서가 낮은 사람의 파트너보다 상호작용의 즐거움과 질을 더 높게 평가했다.

둘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행복한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과로부터 지적이고, 유능하며, 자기표현을 잘 하고, 예의바르다고 판단되었다(Diener & Fujita, 1995; Taylor, Lerner, Sherman, Sage, & McDowell, 2003). 친사회성의 측면에서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하며 덜 이기적일 것으로 판단했고(Schimmack, Oishi, Furr, & Funder, 2004; Rimland, 1982), 긍정적 정서를 표현한 사진 속 인물의 성격을 더 친화력이 높고 능력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Harker & Keltner, 2001).

셋째, 긍정적 정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친사회적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실제로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 상태에 있을 때 더 관대하게 행동했고(Bryant, 1983), 실험 조작으로 긍정적 정서를 유발한 상황에

서 남을 돕거나 무급 자원봉사자로 봉사하는 경향이 있었다(Baron, Rea, & Daniel, 1992; Cunningham, 1988). 더욱이 슬픈 정서가 유발된 사람은 자신의 정서가 변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만 남을 도왔으나, 긍정적 정서가 유발된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을 때에도 남을 도우려고 했다(Manucia, Baumann, & Cialdini, 1984).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의 긍정적 평가와 호감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발달 단계 중에서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특히 민감한 시기는 청소년기일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또래의 사랑과 인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어쩌면 학업보다 더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기의 고립과 또래 거부는 스트레스, 고독감, 문제 행동, 학업 부진과 같은 여러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을 유발할 뿐 아니라(장휘숙, 2004),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생활, 성생활, 심리적 문제, 직업적 문제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Parker & Asher, 1987).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복 수준이 이후 바람직한 또래 관계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했다.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의미와 형성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남자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는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서는 친밀감이나 신뢰감이 더욱 중요하다(장휘숙, 2004). 성공적인 또래 관계의 원인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도,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들보다 오락(entertain)과 강인함(be tough)이 또래관계에서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음이 더 강했다(Jarvinen & Nicholls, 1996). 이러한 성차로 인해서 행복

은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행복과 또래 관계의 관련성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또한 지금까지 행복의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긍정적 정서의 영향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행복의 심리학적 개념에 해당되는 주관적 안녕감(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과 심리적 안녕감(Ryff, 1989; Ryff & Keyes, 1995), 그리고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낙관주의와 자기존중감(Carver & Scheier, 2005; Compton, 2005)을 모두 포함하여 행복의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다양한 행복의 구성요소들이 이후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및 또래 관계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급우들 간에 또래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인 중학교 1학년 1학기 초에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한 학기가 지난 후 새롭게 형성된 또래 관계(인기도, 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신과 또래의 평가)와의 관련성을 남녀 집단별로 검토했다. 또한 학기 말에 인기 집단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거부 또는 고립 집단으로 분류된 학생들보다 학기 초에 측정된 행복 수준이 더 높은지 분석했다.

방 법

연구대상

인천 소재 중학교 1학년 6개 학급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자는 남자가 121명, 여자가 120명으로 총 241명이었다. 이들의 가정경제 수준은 대부분 중산층에 해당했다(중-상: 40.2%, 중-중: 43.6%, 중-하: 7.1%).

측정도구

응답자의 초기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1차 설문지에는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자기존중감, 낙관주의 척도를 포함했다. 또래 관계에 대한 2차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인기도와 사회적 행동을 자기보고와 또래 평가 방식으로 측정하고, 그 밖에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했다. 1차 설문에는 포함된 모든 척도와 2차 설문 중에서 자기보고 방식의 사회적 행동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였다. 2차 설문 중에서 또래 평가는 각 문항에 해당하는 친구의 이름을 세 명씩 적는 방식이었고, 사회적 바람직성은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측정했다. 삶의 만족은 Diener, Emmons, Larsen, 그리고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했고,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은 Diener와 Smith, Fujita(1995)의 척도(Intensity and Time Affect Scale: ITAS)에 대한 이은경(2005)의 번역본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 5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745였고, 긍정적 정서 8문항과 부정적 정서 16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14와 .910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에 대한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의 번역본을 사용했다. 본 척도는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의 6개 차원을 포함하는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자율성'은 자기결정과 독립,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고, '환경지배력'은 환경을 조절하는데 있어서의 숙달감과 유능감이며, '개인적 성장'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느낌이다. 또한 '긍정적인 대인관계'에서 높은 점수는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러우며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고, '삶의 목적'은 삶의 목표와 방향감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끝으로 '자아수용'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다 (Ryff, 1989; Ryff & Keyes, 1995).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543에서 .783수준이었다.

자기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에 대한 한유화와 정진경(2007)의 번역본을 사용했다. 총 10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37이었다

낙관주의

Scheier와 Carver, Bridges(1994)의 삶의 지향 검사 수정본(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4개 통제 문항을 제외한 6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715였다.

인기도

반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아이의 이름을 각각 세 명씩 적게 하고, 거명된 횟수의 학급별 표준점수(Z score)를 인기(Like)와 거부(Dislike) 점수로 사용했다.

또한 Coie와 Dodge, Coppotelli(1982)에 근거하여 또래 지위 집단을 구분했다. 이들의 집단 구분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화된 L(like) 점수와 D(dislike)점수의 차로 사회적 선호 점수 (Social Preference: SP), L점수와 D점수의 합으로 사회적 영향 점수(Social Impact: SI)를 산출한다. 그리고 산출된 4개 점수에 따라 인기집단 ($SP > 1.0, L > 0, D < 0$), 거부집단 ($SP < -1.0, L < 0, D > 0$), 고립집단 ($SI < -1.0, L < 0, D < 0$), 양면집단 ($SI > 1.0, L > 0, D > 0$), 보통집단 ($-0.5 < SP < 0.5, -0.5 < SI < 0.5$)이 구분된다. 따라서 인기 집단은 긍정적 지명만 많이 받은 학생들이고, 거부 집단은 부정적 지명만 많이 받은 학생들이며, 양면 집단과 고립집단은 두 가지 지명을 모두 많이 받거나 받지 못한 집단이다. 그 외의 또래 지위가 극단적이지 않은 학생들은 보통 집단에 분류됐다.

친사회적 행동: 또래 평가

Burgess, Wojslawowicz, Rubin, Rose-Krasnor, 그리고 Booth(2003)가 개발한 학급놀이 확장판 (Extended Class Play)에 대한 정선진(2005)의 번안본 중에서 친사회성 6문항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서 해당하는 학급 친구 세 명씩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사회성 점수는 지명된 횟수의 학급별 표준점수(Z score)로 산출했다.

사회적 행동: 자기 보고

Doh와 Falbo(1998)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라(2001)에서 인기도(예: 나는 친구들의 짝으로 선택될 때가 많다), 리더십(예: 나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많다), 방해성(예: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 사회성(예: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의 4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4개 하위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734에서 .891 수준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Strahan과 Gerbasi(1972)가 개발한 SDS(Marlowe-Crown Social Desirability Scale)에 대한 10문항 축약본을 사용했다.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10개 문항에 대한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546이었다.

절차

행복 정도를 측정하는 1차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들이 중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중순에 실시했다.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2차 설문지는 한 학기가 지난 후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인 7월 중순에 실시했다. 모든 설문지는 학급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각 학급에서 실시되었다. 해당 담임선생님에게는 사전에 질문지 실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였고, 학생들에게는 또래 평가를 포함한 모든 응답내용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음을 공지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했다.

결 과

학기 초 행복 변인들의 관계

학기 초에 측정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자기존중감과 낙관주의의 상호상관을 검토했을 때, 표 1과 같이 측정된 변인들은 남녀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존중감과 낙관주의가 높은 사람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자율성을 제외한 심리적 안녕감의 모든 하위 변인들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학기 초 행복과 학기말 인기도의 관계

청소년기 또래 인기도의 결정 요인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장휘숙, 2004),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학기 초 행복 수준과 학기말 인기도의 관계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학기 초 행복 수준은 여학생보다 남학생 집단에서 4개월 후의 인기도와 더 높은 상관이 있었다(표 2 참조).

남자 중학생의 경우, 학기 초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 정서를 자주 느낀 남학생은 학기 말에 좋아하는 친구로 거명되었고,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한 남학생은 학기 말에 싫어하는 친구로 거명되었다. 또한 남학생의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자기존중감, 낙관주의는 학기 말에 측정된 또래 인기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인기도는 삶의 만족 및 긍정적인 대인관계와만 약한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초기 행복 수준이 학기 말 또래 지위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했다. Coie, Dodge, 그리고 Coppotelli(1982)에 근거해서 또래 지위를 구분했을 때, 인기집단에 59명(남자

표 1.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자기존중감, 낙관주의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SWB											
① 삶의 만족	-	.56**	-.46**	.17	.52**	.42**	.31**	.42**	.56**	.53**	.47**
② 긍정적 정서	.44**	-	-.25*	.17	.40**	.35**	.26**	.26**	.53**	.59**	.46**
③ 부정적 정서	-.31**	.06	-	-.04	-.33**	-.30**	-.27**	-.36**	-.33**	-.33**	-.35**
PWB											
④ 자율성	.25**	.14	-.15	-	.31**	.35**	.38**	.22*	.40**	.41**	.30**
⑤ 환경지배력	.45**	.36**	-.34**	.26**	-	.52**	.58**	.52**	.59**	.47**	.55**
⑥ 개인적 성장	.44**	.35**	-.31**	.14	.53**	-	.57**	.46**	.58**	.56**	.65**
⑦ 삶의 목적	.45**	.37**	-.21*	.08	.57**	.44**	-	.41**	.43**	.50**	.51**
⑧ 대인관계	.35**	.35**	-.33**	.35**	.53**	.58**	.38**	-	.50**	.54**	.52**
⑨ 자아수용	.63**	.50**	-.30**	.27**	.66**	.61**	.58**	.56**	-	.69**	.64**
⑩ 자기존중감	.62**	.52**	-.38**	.31**	.60**	.52**	.57**	.57**	.70**	-	.60**
⑪ 낙관주의	.46**	.40**	-.26**	.33**	.50**	.53**	.52**	.55**	.61**	.59**	-

대각선 아래는 남자, 대각선 위는 여자집단의 결과임

* $p < .05$, ** $p < .01$

표 2. 학기 초 행복과 학기 말 인기도의 관계

	남자		여자	
	인기	거부	인기	거부
SWB				
삶의 만족	.22*	-.16	.01	-.18*
긍정적 정서	.21*	.13	-.05	.02
부정적 정서	-.10	.26**	.03	.06
PWB				
자율성	.04	.07	-.02	.05
환경 지배력	.17	-.03	-.08	-.04
개인적 성장	.46**	-.16	.08	.02
삶의 목적	.12	.11	-.06	.08
긍정적 대인관계	.25**	-.15	.20*	-.24*
자아수용	.36**	-.05	-.08	.03
자기존중감	.33**	-.07	.00	-.07
낙관주의	.37**	-.08	.00	-.03

* $p < .05$ ** $p < .01$

표 3. 남학생의 또래 지위 집단별 학기 초 행복의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인기집단	거부집단	고립집단	F
<u>SWB</u>				
삶의 만족	3.44(.76)	2.98(1.12)	3.02(.55)	2.39
긍정적 정서	3.67 _b (.52)	3.34 _{ab} (.97)	3.04 _a (.73)	4.60*
부정적 정서	2.12(.84)	2.63(.91)	2.19(.87)	1.83
<u>PWB</u>				
자율성	2.93(.51)	3.13(.52)	3.01(.44)	.79
환경 지배력	3.24(.57)	3.04(.55)	2.86(.49)	2.80
개인적 성장	3.86 _b (.38)	3.24 _a (.40)	3.29 _a (.51)	13.67***
삶의 목적	3.63 _b (.72)	3.37 _{ab} (.79)	3.09 _a (.65)	3.33*
긍정적 대인관계	4.10 _b (.68)	3.39 _a (.58)	3.63 _a (.64)	6.23**
자아수용	3.66 _b (.65)	3.11 _a (.68)	3.06 _a (.72)	5.59**
<u>자기존중감</u>	3.73 _b (.61)	3.16 _a (.82)	3.11 _a (.63)	6.30**
<u>낙관주의</u>	4.05 _b (.53)	3.33 _a (.77)	3.33 _a (.73)	8.88***

* $p < .05$ ** $p < .01$ *** $p < .001$

첨자가 다르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함

표 4. 여학생의 또래 지위 집단별 학기 초 행복의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인기집단	거부집단	고립집단	F
<u>SWB</u>				
삶의 만족	3.16 (.73)	3.00 (.86)	3.30 (.80)	.70 <i>n.s.</i>
긍정적 정서	3.32 (.57)	3.60 (.66)	3.33 (.83)	.83 <i>n.s.</i>
부정적 정서	2.36 (.80)	2.13 (.74)	2.38 (.98)	.43 <i>n.s.</i>
<u>PWB</u>				
자율성	2.94 (.54)	3.03 (.58)	2.90 (.51)	.27 <i>n.s.</i>
환경 지배력	3.05 (.50)	3.24 (.58)	3.16 (.60)	.62 <i>n.s.</i>
개인적 성장	3.47 (.55)	3.59 (.53)	3.35 (.49)	.93 <i>n.s.</i>
삶의 목적	3.34 (.64)	3.82 (.53)	3.27 (.73)	3.05 <i>n.s.</i>
긍정적 대인관계	4.01 (.62)	3.69 (.78)	3.71 (.79)	1.60 <i>n.s.</i>
자아수용	3.20 (.63)	3.41 (.63)	3.35 (.67)	.65 <i>n.s.</i>
<u>자기존중감</u>	3.37 (.63)	3.42 (.46)	3.27 (.83)	.27 <i>n.s.</i>
<u>낙관주의</u>	3.48 (.64)	3.73 (.70)	3.49 (.66)	.73 <i>n.s.</i>

27명, 여자 32명), 거부 집단에 30명(남자 16명, 여자 14명), 고립 집단 49명(남자 23명, 여자 26명), 양면 집단 7명(남자 5명, 여자 2명), 보통 집단 19명(남자 13명, 여자 6명)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 사례수가 적은 양면 집단과 보통 집단을 제외하고 인기, 거부, 고립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초기 행복 점수의 차이를 검증했다.

집단별 평균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하고 Duncan 방식으로 사후검증했을 때, 표 3과 같이 인기집단 남학생은 고립집단 남학생보다 학기 초에 측정된 긍정적 정서($F_{(2, 62)} = 4.60, p < .05, \eta^2 = .13$)와 삶의 목적($F_{(2, 58)} = 3.33, p < .05, \eta^2 = .10$)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인기 집단 남학생은 거부 또는 고립 집단 남학생보다 개인적 성장($F_{(2, 57)} = 13.67, p < .001, \eta^2 = .32$), 긍정적 대인관계($F_{(2, 57)} = 6.23, p < .01, \eta^2 = .18$), 자아수용($F_{(2, 60)} = 5.59, p <$

$.01, \eta^2 = .16$), 자기존중감($F_{(2, 63)} = 6.30, p < .01, \eta^2 = .17$), 낙관주의($F_{(2, 60)} = 8.88, p < .001, \eta^2 = .23$)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1차시기에 측정한 모든 행복 변인들은 인기, 거부, 고립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참조).

행복과 친사회성: 또래 평가

응답자의 행복과 4개월 후 또래의 친사회성 평가 간의 관련성을 검토했을 때, 초기 행복은 남학생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친사회성과 더 높은 상관이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표 5와 같이, 개인적 성장($r = .33, p < .01$), 자기수용($r = .20, p < .05$), 낙관주의($r = .27, p < .01$)가 높은 남학생이 믿을 수 있는 친구로 평가받았고, 삶의 만족($r = .21, p < .05$)과 개인적 성장($r = .22, p <$

표 5. 행복과 또래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의 관계: 남학생

	아이디어	믿음	차례	공평	도움	예의
SWB						
삶의 만족	.04	.10	.13	.12	.06	.21*
긍정적 정서	-.08	.09	.07	.12	.08	.14
부정적 정서	.12	.01	.04	-.04	.01	-.02
PWB						
자율성	.11	-.01	-.04	.00	-.01	.10
환경 지배력	-.03	.11	.03	.08	.05	.12
개인적 성장	.11	.33**	.07	.11	.15	.22*
삶의 목적	-.17	.07	.10	-.01	.05	.12
긍정적 대인관계	-.03	.15	-.01	.03	.06	.08
자아수용	-.06	.20*	.00	.15	.01	.17
자기존중감	-.10	.09	-.04	.15	.02	.11
낙관주의	-.04	.27**	.14	.10	.12	.18

* $p < .05$ ** $p < .01$

표 6. 행복과 4개월 후 또래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간의 관계: 여학생

	아이디어	믿음	차례	공평	도움	예의
<u>SWB</u>						
삶의 만족	.30**	.03	.17	.13	.26**	.27**
긍정적 정서	.23*	-.11	-.01	.00	.12	.17
부정적 정서	.03	.02	.09	.03	.06	.06
<u>PWB</u>						
자율성	.22*	.00	.01	.05	.06	.03
환경 지배력	.09	-.04	.13	.11	.09	.10
개인적 성장	.30**	.13	.12	.17	.24**	.26**
삶의 목적	.25**	.06	.13	.17	.18	.23*
긍정적 대인관계	.19*	.08	.12	.19*	.10	.09
자아수용	.20*	-.07	.02	.06	.09	.10
자기존중감	.33**	.02	-.03	.15	.26**	.22*
낙관주의	.19*	-.09	.10	.17	.09	.14

* $p < .05$ ** $p < .01$

표 7.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행복과 4개월 후 자신의 사회성 지각의 부분상관

	인기도	리더십	방해성	사회성
<u>SWB</u>				
삶의 만족	.35**	.30**	-.03	.16*
긍정적 정서	.30**	.23**	-.07	.19*
부정적 정서	-.15	-.12	.12	-.09
<u>PWB</u>				
자율성	.24**	.45**	.10	.18*
환경 지배력	.38**	.34**	-.16*	.03
개인적 성장	.43**	.35**	-.12	.19*
삶의 목적	.26**	.33**	-.00	.15
긍정적 대인관계	.35**	.37**	-.15	.34**
자아수용	.35**	.33**	-.10	.19*
자기존중감	.44**	.48**	.01	.17*
낙관주의	.39**	.36**	-.13	.32**

* $p < .05$ ** $p < .01$

.05)이 높은 남학생이 예의바른 친구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표 6과 같이, 부정적 정서와 환경지배력을 제외한 모든 측정된 초기 행복 변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친구라는 또래 평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삶의 만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그리고 자기 존중감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예의바른 친구라는 또래 평가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 밖에 여학생의 긍정적 대인관계 점수는 공평한 아이라는 또래 평가와 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학기 초 행복과 사회적 행동: 자기 보고

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행복과 4개월 후의 자신의 사회성 평가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을 산출했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초기 행복은 4개월 후 긍정적인 자기 평가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자기존중감이 높고 낙관적인 중학생들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자기보고된 방해성 점수는 심리적 안녕감의 환경지배력과만 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논 의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방향은 무엇이 행복을 유발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행복이 무엇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 수준이 그 이후의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를 위해서 중학교에 입학하여 학급 또래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인 1학년 1학기 초에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자기존중감, 낙관주의 경향성을 측정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인기도와 사회적 행동을 자기 보고 방식과 또래 평가 방식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기 초의 행복 수준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학기말 인기도와 더 큰 관련이 있었다.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자기존중감이 높고 낙관적인 남학생이 그렇지 않은 남학생보다 4개월 후에 또래로부터 좋아하는 친구로 거명되었다. 또한 또래 지위 극단 집단을 구분했을 때, 인기 집단 남학생은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고립된 남학생보다 학기 초 행복 수준이 높았다.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경험은 그 당시 뿐 아니라 이후의 다양한 심리행동적 적응을 유발함을 고려할 때(장희숙, 2004; Parker & Asher, 1987), 행복한 남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선호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써 더 많은 지원과 안정감,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학생의 학기 초 행복은 학기 말 인기도와 관계가 없었다. 왜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행복은 또래의 선호와 관련이 없는가? 그 이유는 먼저 청소년기 또래 관계의 성별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친구 관계는 함께하는 활동이나 오락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요소들이 강조되는 반면에 여자 청소년에게는 관계의 질적 측면과 개인의 내면적 특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배타적 우정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장휘숙, 2004; Jarvinen & Nicholls, 1996). 이러한 성차로 인해서 긍정적 정서, 낙관주의, 자기존중감과 같은 요소들은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의 인기도와 더 깊은 관련이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상대방이 주장하거나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보고된 행복과 또래선호의 관계가 약하게 나타났을 수도 있는 만큼 행복 수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 한 후 인기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비록 학기 초 행복이 여학생의 인기도나 또래 지위와 관련이 없었을지라도, 또래들은 행복한 여학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 평가에서 학기 초 행복 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은 또래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갖은 아이, 남을 돕고 예의바른 아이로 평가 받았다. 남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복의 하위변인으로 포함된 개인적 성장과 낙관주의 점수가 높은 남학생이 또래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아이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선행연구들(Diener & Fujita, 1995; Harker & Keltner, 2001; Rimland, 1982; Schimmack et al., 2004; Taylor et al., 2003)과 일치한다. 특히 긍정적 정서의 창의력 촉진 효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Isen et al., 1984; 1985; 1987).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의 이러한 효과가 삶의 만족이

나 심리적 안녕감, 자기존중감과 같은 다른 행복 요소들에도 일반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창의력에 대한 또래 평가인 만큼, 행복한 여학생이 실제로 창의력 점수가 높은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Fredrickson(1998; 2001; 2005)이 긍정적 정서의 확장과 자원 형성의 기능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또한 측정된 여러 행복 변인들 중에서 일부 변인들만이 또래의 긍정적 평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선행연구자들의 주장과 달리 본 연구에서 또래의 평가에 대한 행복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은 본 연구의 기간이 4개월로 충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행복의 사회적 기능에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과 긍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Diener & Oishi, 2004),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Diener, Suh, Smith, & Shao, 1995). 더욱이 미국인들은 행복한 사람을 도덕적이고 존경할만하며 따뜻하다고 판단하지만, 일본인들은 미성숙하고 이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서은국, 2004), 서구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행복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긍정적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행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장기적인 종단 연구와 비교문화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가능성들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여러 행복의 요소들 중에서 특히 심리적 안녕감의 개인적 성장 변인은 청소년의 또래 선호 및 지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었다. 학기 초 개인적 성장 점수는 남학생의 학기 말 인기도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또래 지위를 32%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남학생은 또래로부터 믿음이 가고 예의바르다는 평가를 받았고, 여학생의 경우 창의력이 있고 친사회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적 성장이란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즉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것이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이러한 인식이 높은 청소년이 또래의 선호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적 성장감이 자아 실현, 잠재력 개발, 그리고 최적의 심리적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청소년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부정적 정서를 제외한 모든 행복 변인들은 학기말에 측정된 자신의 사회성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높은 관련이 있었다. 즉, 학기 초에 행복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들은 모두 학기 말에 자신이 사회적이며, 인기와 리더십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했을 때의 결과이므로 행복한 청소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복한 청소년은 실제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행복한 사람의 긍정적인 자기 지각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자세한 내용은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비록 일부 변인들에서 성차가 나타났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은 4개월 후의 긍정적인 자기 지각, 또래의 선호 및 또래의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었다. 자기정체감을 형성하고 또래관계

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청소년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존중 및 또래의 사랑과 인정은 개인적 성장을 위한 자산임이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행복의 결과는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행복과 심리적 안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행복과 사회적 관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비록 행복한 청소년이 4개월 이후에 또래관계가 긍정적이었을 지라도 행복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행복의 사회적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넘어서 행복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처치와 통제집단을 포함하는 보다 정교한 설계구조를 가진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기 초 인기도와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지 못했다. 비록 학기 초에는 아직 급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래에 의한 평가는 불가능할지라도 사회적 행동의 자기보고식 측정은 가능하며, 이를 통제했을 때 여전히 초기 행복이 학기말 또래관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행복과 또래관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인을 고려하고 통제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성적이나 반장/부반장으로서의 직책, 그리고 외모와 같은 변인들은 청소년의 행복 및 인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로 인해서 행복과

사회적 관계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측정 한 후 이들의 영향을 배제했을 때에도 행복의 효과가 유의미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또래의 인기도 평가에서 평가하는 사람의 성별을 고려하지 못했다. 청소년들이 동성과 이성친구를 평가하는 기준은 서로 다를 수 만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을 동성 또는 이성으로 제한하여 지명하게 한 후 결과를 비교하는 것 또한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행복이 형성하는 다양한 자원들 중에서 사회적 자원이라는 제한된 영역만을 다루었고, 연구 대상도 청소년으로 제한되었다. 행복은 개인의 사회적 측면 뿐 아니라 신체적, 지적, 심리적, 직업적 영역에서 자원을 형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러한 분야들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 장기 종단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행복의 자원형성 기능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재선, 김의철 (2006a).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 77-100.

구재선, 김의철 (2006b).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 1-18.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19-39.

서은국 (2004). 주관적 안녕감과 최근 연구 동향. *한국임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3-18. 11월 6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이사라 (2001). 부모와 또래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경 (2005).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주일, 정지원, 이정미 (2006). 미국거주 한인 노인과 국내노인 간 행복감의 차이 및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 169-203.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정선진 (2005).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유화, 정진경 (2007).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17-131.

Baldassare, M., Rosenfield, S., & Rook, K. S. (1984). The types of social relations predicting elderly well-being. *Research on Aging*, 6, 549-559.

Baron, R. A., Rea, M. S., & Daniels, S. G. (1992). Effects of Indoor lighting(illuminance and spectral distribution) on the performance of cognitive tasks and interpersonal behavior: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of positive affect. *Motivation and Emotion*, 16, 1-33.

Bell, P. (1978). Affective state, attraction, and affiliation: Misery loves happy company too.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616-619.

- Berry, D. S., & Hansen, J. S. (1996).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96-809.
- Bryant, B. K. (1983). Context of success: Affective aroused generosit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 553-562.
- Burgess, K. B., Wojslawowicz, J. C., Rubin, K. H., Rose-Krasnor, L., & Booth, C. L. (2003). The 'Extended Class Play' A longitudinal study of its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empa, FL.
- Carver, C. S., & Scheier, M. F. (2005). Optimism. In C. R. Snyder & S. J. Lopez (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231-243).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Compton, W. C. (2005).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CA: Thomson Wadsworth.
- Csikszentmihalyi, M., & Wong, M. M. (1991). The situational and personal correlates of happiness: a cross-national comparison.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z (Ed.),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 193-212). Oxford: Pergamon Press.
- Cunningham, M. R. (1988). What do you do when you're happy or blue? Mood, expectancies, and behavioral interest. *Motivation and Emotion, 12*, 309-33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Fujita, F. (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26-935.
- Diener, E., & Oishi, S. (2004). Are Scandinavians happier than Asians? Issues in comparing nations on subjective well-being. In F. Columbus (Ed.), *Asian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Vol. 10* (pp. 1-25). Hauppauge, NY: Nova Science.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1-84.
- Diener, E., Smith, H.,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30-141.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Suh, E. M., Smith, H., & Shao, L. (1995).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7-32.
- Doh, H.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 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3*, 149-162.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 Fredrickson, B. L. (2005). Positive emotions. In C. R. Snyder & S. J. Lopez (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120-134). NY: Oxford University Press.
- Fredrickson, B. L., Cohn, M. A., Coffey, K. A., Pek, J., & Finkel, S. M. (2008). Open hearts build lives: Positive emotions, induced through loving-kindness meditation, build consequential personal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1045-1062.
- Fredrickson, B. L., & Joiner, T. (2002). Positive emotions trigger upward spirals toward emotional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13, 172-175.
- Fredrickson, B. L., Tugade, M. M., Waugh, C. E., & Larkin, G. R. (2003).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in crise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65-376.
- Harker, L., & Keltner, D. (2001). Expressions of positive emotion in women's college yearbook pict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sonality and life outcomes across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112-124.
- Isen, A. M., & Daubman, K. A. (1984). The influence of affect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206-1217.
- Isen, A. M., Daubman, K. A., & Nowicki, G. P. (1987). Positive affect facilitates creative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22-1131.
- Isen, A. M., Johnson, M. M. S., Mertz, E., & Robinson, G. F. (1985).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the unusualness of word associ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413-1426.
- Jarvinen, D. W., & Nicholls, J. G. (1996). Adolescents' social goals, beliefs about the causes of social success, and satisfaction in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35-441.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 Manucia, G. K., Baumann, D. J., & Cialdini, R. B. (1984). Mood influences on helping: Direct effects or side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357-364.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equena, F. (1995). Friend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in Spain: A cross-national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5, 271-288.
- Rimland, B. (1982). The altruism paradox. *Psychological Reports*, 51, 521-52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chimmack, U., Oishi, S., Furr, R. M., & Funder, D. C. (2004). Personality and life satisfaction: A facet-leve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1062-1075.
- Strahan, R., & Gerbasi, K. C. (1972). Short homogenous version of the Marlowe-Crown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191-193.
- Taylor, S. E., Lerner, J. S., Sherman, D. K., Sage, R. M., & McDowell, N. K. (2003). Portrait of the self-enhancer: Well-adjusted and well-liked or maladjusted and friendl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65-176.
- Veenhoven, R. (1988). The uti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333-354.
- Veenhoven, R. (1989). *How Harmful is Happiness? Consequences of Enjoying Life or Not?* Rotterdam, The Netherlands: University Press Rotterdam.
- Waugh, C. E., & Fredrickson, B. L. (2006).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93-106.
- 논문투고일 : 2008. 12. 29
1차 심사일 : 2009. 01. 09
게재확정일 : 2009. 02. 16

Social consequences of happiness: Are happy people popular?

Jaisun Koo

Ah-rong Lee

Eunkook M. Suh

Chungbuk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ocial consequences of happines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effect of happiness on the formation of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A total of 241 Korea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a happiness questionnaire consisting of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and optimism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Four months later, their popularity and social behaviors were measured using self-reports and peer-nomination measures. Happy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come nominated as a preferred friend by their peers at the end of the semester; happy females were evaluated by their peers as being more creative than others. Happy adolescents also viewed themselves as being more sociable, popular, and having more leadership than others. Overall, the findings imply that happiness also have positive social consequences in highly collectivist cultural settings, such as Korea.

Key words :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popularity, peer-relationship*